

#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사고 줄인다

## 도교육청, 학생교통·통학로 안전종합계획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학생교통 및 통학로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 통학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지자체·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3월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이 발견된 이리신흥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방음벽 등의 설치를 익산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도 나서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교통안전 교육자료 개발·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전북안전매뉴얼' 앱을 활용한 안전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매주 사이좋은 안전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운전자와 학부모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준수 및 교통신호 철저히 지키기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아간에 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LED 후미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안전도우미회를 구성·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팀 유승우 장학관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부패방지 맑은전북교육추진단 회의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1일 5층 정책회의실에서 2019년 맑은전북교육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관한 협의와 청렴전북교육을 위한 정책제안 및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교육장 등 내부위원 31명과 대학교수, 세무사, 기자, 변호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8명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사책 평가 결과를 분석·공유하고, 2019년도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청렴도 개선계획과 부서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개인 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청정 전북교육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우수등급, 2017년 보통등급, 2018년 우수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미래가치 극대화하는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

## 전주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호남권역 최대 사업비 확보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올해부터 대학과 지역의 창업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플랫폼을 제공해 최적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호남권역 최대 사업비인 총 24.2억원을 투입해 지역 창업, 대학 창업,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투자

등 토털 솔루션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치 성장형 스타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전주대가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2011년부터 8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과 다른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 세대융합캠퍼스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이다.

전주대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나 고급 기술을 가진(예비)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전주대는 16명의(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주정아 창업지원단장은 "올해부터 우리 지역의 경제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적화된 창업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8년 동안 구축한 지역 창업 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미래가치 성장을 극대화하는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9년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전라북도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등 총 30여억 원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박물관, '아름다운 박물관 이야기 할머니' 큰 호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박물관 이야기 할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와 전래동화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아름다운 박물관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올해 처음 파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야기할머니들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선정한 구연동화 전문가로 국립전주박물관 이야기할머니 백운순씨는 6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원광대학교 외래 교수와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시조·수필 창작 전담교수를 맡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일정은 4월 1일~7



월 19일(1학기), 8월 26일~27일(2학기)까지며,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3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과 전화(063-220-1016, 1035, 1038)로 문의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융합제품 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 전주대, 한국기계공학회 캡스톤디자인 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는 최근 전주 동방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한국기계공학회 춘계 학술대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전주대 학생 1개 팀이 최우수상,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계자동차공학과 이현중 학생 외 7명(김진혁, 박가민, 임정우, 문상민, 양우진, 지석현, 김도훈 학생)과 김홍건 교수 팀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수상용 드론을 제작하여 드론이 수상에서도 이차륙할 수 있도록 설계해 드론의 수상 분야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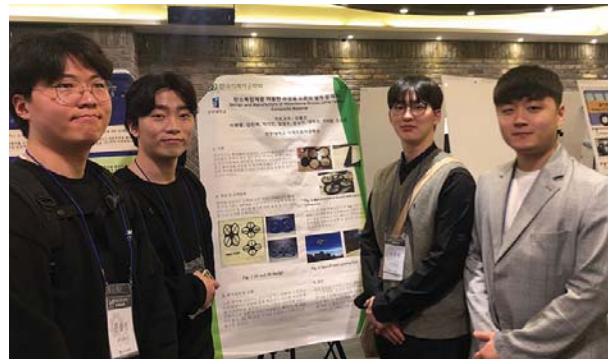
특히, 수상 드론이 필요한 산업체와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공동 회의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수 십 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 드론의 프레임은 탄소합금 소재로 활용하고 이차륙 보조물을 부착하며 수상환경에 최적화된 최종 모델을

제작했다.

기계자동차공학과 이현중 학생은 "팀의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계, 전기,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른 공학 적 지식을 기계분야에 접목하여 성장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전주대 학생 3개 팀도 탄소소재와 관련된 신제품을 개발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선훈 학생 외 6명(김지수, 최영재, 김영권, 김양호, 소재신, 유민영 학생)과 박이구 교수팀은 탄소부직포 면상 발열체를 이용한 즉육기를 제작했고, 기계자동차공학과 강민우 학생 외 5명(김종만, 김종찬, 범두진, 송윤의, 안형주 학생)과 강성수 교수팀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리프트 장치를 제작했다.



전주대학교가 최근 전주 동방호텔에서 진행된 한국기계공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학생 1개 팀이 최우수상,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기계자동차공학과 최선호 학생 외 6명(박병림, 오기현, 송우진, 박준홍, 정성민, 황연택 학생)과 고상철 교수팀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휴대용 전동 키보드를 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전주대는 탄소기술융합제품링사업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무 능

력을 겸비한 탄소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을 운영하며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대학 교수, 기업의 엔지니어와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과 사회와 요구하는 탄소융합제품과 연관성 높은 제품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내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희생정신과 기리고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 선교사와 관련된 성화·미술 작품과 유물을 전시하여 기독교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3·1운동 현장과 독립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화폭에 담은 성화 작품 20점, 스케치 작품 12점, '한국 독립운동지형서', '대한지지' 등 박물관 소장 유물 16점, 한남대 중앙박

물관 소장 레이놀즈목사 부부사진 등 16점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폭 넓은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전주·군산 지역 3·1운동 관련 유적지 답사, 기념독립선언문 및 태극기 탁본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100년 전의 3·1운동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위해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직접 방문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